

남수현 금메달 명종 10점 화살에 순천이 '들썩들썩'

가족·동문·시민 등 100여명
순천만 국가정원에서 응원전
순천시 초중고 졸업 순천시청 입단
“시민으로 자긍심 느껴 뿌듯해요”



29일 오전 2024 파리 올림픽 양궁 여자 단체전에 출전한 남수현 선수를 응원하는 행사가 열린 순천시 순천만국가정원 오천그린광장에서 남수현의 아버지 남관우(앞줄 맨 왼쪽)씨와 어머니 고수진(왼쪽 두 번째)씨를 비롯한 시민들이 우승이 확정되자 환호하고 있다. <순천시제공>

‘순천시는 언제나 너와 함께야. 남수현 화이팅, 남수현 거침없이, 해보자 해보자 후회없이.’ 남수현이 거주하며 소속팀으로 활동하는 순천시 순천만국가정원 오천그린광장에서는 지난 28일 오후부터 ‘10연패 기원 응원전’이 열렸다. 가족·동문·시민 등 100여명이 모여 역사적인 순간을 지켜보고, 중국과의 접전 끝에 결승전에서 금메달이 확정되자 기쁨의 환호성을 질렀다. 이들은 남수현의 선전을 응원하는 피켓을 들고 나와 오천그린광장을 함성으로 채웠다. 시민들은 남수현이 활시위를 당길 때마다 숨죽이며 지켜보다 화살이 과녁을 찌는 순간 우레와 같은 박수와 함께 ‘남수현’의 이름을 부르며 연호했다. 남수현은 지난해까지 성인 국제대회 경험이 거의 없었지만 긴장하지 않을까 우려하는 모습도 보였다. 이들은 마침내 대한민국 여자 양궁이 올림픽 단체전에서 10연패의 신화를 일궈내자 열광하고 기쁨을 나눴다. 남수현, 임시현(한국체대), 전훈영(인천시청)으로 이뤄진 한국 대표팀은 29일(한국시간) 프랑스 파리의 레장발리드에서 열린 2024 파리 올림픽 양궁 여자 단체전 결승전에서 안치우안, 리자만, 양사오레이로 팀을 꾸린 중국을 5-4

(56-53 55-54 51-54 53-55 <29-27>)로 물리쳤다. 막내 남수현은 생애 첫 올림픽 사로서 든든한 활숨씨를 뽐내며 10연패 금자탑을 세우는 데에 일조했다. 남수현은 결정적인 순간 영양가 만점짜리 10점을 쏘았다. 결승전 슛오프에서 임시현과 함께 10점을 작렬, 우승에 마침표를 찍었다. 순천 시민들은 피를 말리는 승부에서 남수현이 쏜 화살이 10점짜리

과녁에 꽂히자 눈물을 글썽이기도 했다. 신아경(여·43·순천시 덕연동)씨는 “올림픽 양궁 10연패의 주인공 중 1명이 순천 출신 남수현 선수인데 너무 자랑스럽다”면서 “순천시민으로서 자긍심이 든다”고 기뻐했다. 응원전을 준비한 순천시 관계자들도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남수현은 순천시청 운동부 창설 이래 첫 메달을 금으로 장식하는 또다른 역사를 썼다. 그가 이번에 딴 메달은 순천시청 운동부가 수

확한 첫 올림픽 금메달이다. 남수현은 순천 성남초, 풍덕중 순천여고를 졸업하고 순천시청 양궁팀에 입단한 순천 토종이다. 이현태 순천시청 체육산업과장은 “남수현 선수가 순천만정원박물관 이후 순천을 세계와 전국에 다시 한 번 알릴 수 있는 기회를 됐다”며 “순천시청 직장운동부 창설 이후 올림픽 메달이 처음인데 금메달이 나왔다”며 감격했다. /순천=김은중 기자 ejkim@kwangju.co.kr



펜싱·수영·유도·사격 메달 사냥

2024 파리 올림픽에서 100호 금메달·양궁 10연패 등으로 순항하고 있는 한국선수단의 메달 도전이 이어진다. 30일(이하 한국시간) 오후 8시 30분 파리 그랑팔레에서 치러지는 펜싱 여자 에페 단체전 8강에서는 강영미(광주 서구청)와 송세라(부산시청), 이혜인(강원도청)이 프랑스와 맞붙는다. 수영 남자 계영 800m 대표팀은 오후 8시 8분 라데팡스 수영장에서 예선을 시작한다. 김우민·황선우·양재훈(이상 강원도청), 이호준(제주시청), 이유연(고양시청), 김영현(안양시청)으로 구성된 남자 계영 800m팀은 한국 수영 새 역사에 도전한다. ‘한국 대표팀 최고령’ 이보나(부산시청)는 강지은(KT)과 이날 오후 4시 사격 여자 트랩 예선에 출전한다. 사격 10m 공기권총 혼성 단체 이원호(KB국민은행)와 오예진(IBK) 조는 이날 3위를 기록한 인도(580점)와 동메달 결정전을 치른다. 유도에서는 김지수(경북체육회)가 오후 5시 아레나 상 드 마르스에서 바비라 티모(포르투갈)를 상대로 여자 63kg급 32강에 나선다. 이어 이준환(용인대)이 오후 6시 18분 남자 81kg급 32강전에 출전해 아크라프 무티(모로코)와 맞붙는다. 8강 상대로 예상되는 질립 트치카에프(아제르바이잔)과 경기가 관건이다. 여자 핸드볼 대표팀은 오후 6시 사우스 파리 아레나에서의 조별 예선 3차전에서 노르웨이를 상대한다. /서민경 기자 minky@kwangju.co.kr

“금메달 우리 딸, 자랑스럽고 고맙다”

남수현 선수 어머니 고수진씨
“수현이의 무기는 긍정 마인드
밤낮없이 훈련에 힘 쏟은 결실”

“우리 딸이 ‘올림픽 10연패’ 명단에 이름을 올리다니, 너무 자랑스럽고 고마운 마음 뿐이에요.” 대한민국 양궁 국가대표 남수현의 어머니 고수진(44)씨는 “작은 점수차로 아슬아슬하게 맞붙는 심장을 졸이면서 봤다”면서도 “아이(남수현)가 웃고 있고 심박수도 안정된 걸 보니 경기가 잘 풀리겠다는 믿음이 생겼다”고 웃었다. 고수진씨를 비롯한 남수현의 가족, 동문, 시민 등 100여명은 29일 새벽 순천시 순천만국가정원 오천그린광장에서 ‘10연패 기원 응원전’을 열고 남수현이 ‘올림픽 10연패’ 역사를 새로 쓰는 순간을 함께 지켜봤다. 중국과의 접전 끝에 남수현이 금메달을 목에 걸게 되자, 남수현의 가족들은 “수현이가 매일같이

현대전화도 꺼 놓은 채 밤낮없이 훈련에 힘을 쏟은 결실”이라고 기뻐했다. 고씨에 따르면 남수현이 양궁을 시작하게 된 건 순천 성남초 3학년 때인 지난 2014년이다. 체육수업의 일환으로 양궁 체험학습을 갔던 것이 계기로, 양궁부 코치 교사가 남수현의 재능을 알아보고 “양궁을 해 보지 않겠느냐”고 권유한 것이 시작이었다. 남수현은 1년 동안 취미반으로서 기초적인 활 시위 당기기 훈련 등을 받다가, 이듬해 곧바로 선수반으로 발탁됐다. 이후 풍덕중, 순천여고에서 양궁 실력을 갈고 닦은 끝에 고교 졸업 직후 국가대표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이후 남수현은 각종 대회에서 잇따라 우승하며 실력을 입증해 왔다. 고교를 졸업한 지난 2월 순천시청 양궁팀에 입단해 주박받았다. 지난해 제104회 전국체육대회에서 고등부 2위를 했으며, 제57회 전국남여양궁종별 선수권대회에서는 고등부 1위를 거머쥐었다. 올해 4-6월 열린 양궁월드컵에서도 1차·2차 대회 여자 단체전에서 은메달을, 3차 대회 여자 단체전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고씨는 이에 더해 “수현이의 무기는 ‘긍정적인 마인드’”라고 귀띔했다. 당장의 성적이 잘 안 나오더라도 ‘잘 될 것이다’는 마음가짐으로 주변 사람들을 안심시키곤 한다는 것이다. 고씨 또한 날이 갈수록 밝고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남수현을 보면서 믿음을 갖고 응원할 수 있었다고 한다. 고씨는 “노력은 아이가 다 했다. ‘올림픽 10연패’라는 목표가 굉장히 무거웠을텐데, 깨끗하게 이겨내는 데는 긍정적인 성격이 큰 역할을 한 것 같다”며 “수현이가 하겠다고 한 일, 스스로 꾸준히 잘 하고 있으니 부모는 지켜보고 응원해주고 지지해주는 역할밖에 할 것이 없었다”고 했다. 고씨를 비롯한 남수현 가족들은 “아직 개인전도 남아 있고, 훈련도 해야 할테니 연락하고 싶은 마음이 꼭 참고 있다”며 “올림픽 끝나면 수현이를 잔뜩 축하해주고 밤새도록 이야기꽃을 피우고 싶다”고 입을 모았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전남도는 남수현의 재능 띄워주어 알아봤다

‘으뜸인재’ 선정해 3년간 지원

2024 파리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목에 건 여자 양궁 국가대표 남수현(19·순천시청) 선수는 전남도가 진주 재능을 알아보고 지원을 아끼지 않았던 ‘인재’였다. 남수현은 지난 2021년 전남도의 새천년 인재육성 프로젝트에 따라 ‘으뜸인재’로 선정된 바 있다. 당시 전남도는 매일 12시간 이상 활을 쏘는 성실함을 갖추고 있는 남수현의 성장 가능성을 알아보고 으뜸 인재로 발굴, 3년간 운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누군가 자신의 재능을 인정했다는 자신감도 커졌다. 남수현은 초등학교 3학년부부터 매일 12시간 이상 활을 쏘며 연습을 게을리하지 않았고 지난 2020년 청소년 국가대표에 선발되는 등 실력을 키웠다. 남수현은 으뜸인재 선정 뒤 광주일보와의 인터뷰를 통해 “지역과 국가에 기여할 수 있는 선수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선정할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바르게 살아가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또 “국가대표로 성장해 신기록을 수립하고 전남도 홍보대사로 위촉되고 싶다”고 했다. 그는

후배들에 대해서 “저도 초등학교 3학년 때 양궁체험을 해보고 나서야 제가 잘 하는 것을 찾았다”면서 “저보다 어린 고향 후배들에게는 최대한 체험을 많이 해보라고 권하고 싶다”고 조언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이날 남수현에게 축전을 보내고 포상 규정에 따라 우수선수 육성 지원금(7000만원)과 포상금(50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김 지사는 “남 수현은 새천년 으뜸인재로 선정된 전남의 자랑스러운 인재로, 전남도민을 비롯한 온 국민에게 희망과 감동을 전해준 데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전남도의 으뜸인재 발굴대회는 전남의 주역으로 성장할 인재를 발굴하고 육성하기 위한 ‘새천년 인재육성 프로젝트’의 하나로 지난 2019년부터 시작해 5년 동안 411명을 선발했다. 전남도의 지원을 받은 인재들은 국가대표 선발을 비롯해 전국대회 입상, 논문 발표, 서적 출간, 특허 출원, 희망 대학 진학 등의 성과를 내고 있다. 전남도 관계자는 “인재가 전남의 희망입니다”라는 기치 아래 미래 지역을 이끌 인재를 집중 육성하는 시책을 발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우 기자 dok2000@kwangju.co.kr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 240326-중-166833호] [광고]

허리 통증이 심할때는

첨단우리병원

허리 디스크 협착증

미세현미경 수술
척추 내시경 수술
고주파 수핵 감압술
척추 유합술

튼튼한 척추 튼튼한 관절
첨단우리병원

대표전화. 970-6000
광주과학기술원 / 호수공원 앞

Inno-biz기업, 전라남도 유망중소기업

공공하수 · 공공폐수 · 공장폐수 고도처리 전문회사

- 수질 환경전문공사업 / 수질 측정대행업
- 공공하수도 (10,000㎡/일)미만 / 하수관로 관리대행업
-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TMS)
- 환경건설링회사, 환경관리대행기관
- 폐기물수집운반업, 해외건설업
- 총질소처리 공법(A2O4공법) 등 특허 4건, 실용신안 2건
- 하 · 폐수처리시설 설계 시공, 기술자문
- 공공하수/공공폐수 처리시설 시운전 및 유지관리 용역

수처리용 미생물제, 수처리 기자재 제조

- 미생물제품: 질소처리용 종균제 (Nitcell-O) 하수/폐수처리용 종균제 (Negenzyme)
- 화학약품: 응결제, 고분자응집제, N,P영양제,
- 고효율 STS membrane 불 산기관 (TMS-600+)
- 판형 산기관 (TMP-1000)
- 유기탄소원: 니트셀-C
- 천연고분자 키토산침강제 (Nexchy)
- 자동제어반, 교반기
- 부상조, 슬러지 건조기 등

대기환경분야

- 대기 환경전문공사업
- VOC Treatment System
- Solvent Recovery System
- SCR De-NOx System
- Sulfur(H2S) Removal System
- Dust Collection System
- 기술상담 및 자문

1997 태림인드스트리에 법인설립
2011 수출백만불탑, 수출유공자 수상
2016 나주시 스타기업 선정
2016 중소벤처기업부장관상 (요별중소기업인)
2019 환경부장관상 표창 (환경보전 공로)

2020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
2020 전라남도 유망중소기업 지정
2021 LG화학 우수협력회사 선정
2022 고용노동부 중소기업 선정
2023 국제형 모범기업 표창

Homepage : http://www.taeri.co.kr
E-mail : master@taeri.co.kr